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20년 1월 11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0.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. 10(금)	담당부서	철강세라믹과
담당과장	김현철 과장(044-203-4290)	담 당 자	김성준 사무관(044-203-4291)

철강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혁신과 재도약을 다짐

- 2020년 철강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와 **한국철강협회**(회장 최정우)는 **1.10.(금) 서울 포스코센터**에서 **철강 업계 관계자 150여 명**이 참석한 가운데 **「2020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」**를 개최함

【 철강 업계 신년인사회 개요 】

- **(일시/장소)** '20.1.10(금) 17:00~17:50 / 포스코센터 서관 4층
- **(참석자)** 산업부 차관, 한국철강협회장, 철강업계 대표*, 학계 등 150여 명

* 포스코, 현대제철, 동국제강, 세아제강, 케이지(KG)동부제철, 고려제강, 티씨씨(TCC)스틸 등

□ 이번 행사에 참석한 **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**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, 보호무역주의 등 **어려운 여건이 계속**되었음에도 철강 산업이 **3년 연속 수출 300억불을 달성**하는 저력을 보였다고 평가하며,

* 철강 수출액 : ('16) 285억불 → ('17) 342억불 → ('18) 340억불 → ('19) 311억불

○ 국내 기업 최초로 **세계경제포럼 "등대공장"으로 선정된 기업**, 오랜 기간의 **구조조정 졸업 후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 기업 등**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준 **철강 업계에 감사와 격려**를 표함

* 포스코 : '19.7월 세계경제포럼 등대공장(세계 제조업 미래 혁신을 이끄는 공장) 선정
* 동부제철 : '19.9월 케이지(KG) 그룹 인수 후 워크아웃 졸업, 경영 정상화 진행 중

□ 2020년에도 **세계 철강수요 둔화, 국내 전방산업 부진 등** 철강 산업의 여건이 **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**되는 만큼,

○ **업계와 정부가 협업과 상생의 자세로 뭉쳐 새로운 경쟁력**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, 아래 **네 가지의 측면**에서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

❶ **산업 지능화**를 통해 철강 산업의 **생산성·기술력을 업그레이드**

- **선도기업**이 **인공지능(AI) 경험과 노하우를 중소·중견기업에게 전수**하고, 중소·중견도 **공동 투자 등 긴밀히 협력**하는 **"산업 지능화 협력 체계"**의 구축을 강조하며, 정부도 예산 지원 등 적극 뒷받침할 계획

❷ **고부가가치 소재에서 글로벌 경쟁력**을 확보

- 범용 품목에서 **중국 등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조를 전환**하고 **고부가가치 분야 점유율**을 높이기 위해 **유망품목 기술개발,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, 수요-공급기업 협력 사업** 등을 종합 지원

❸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어 **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**

- 기업들이 신남방·신북방, 신흥국 등으로 시장을 계속 넓혀나가길 당부하며 정부는 **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금융** 지원(257조원 이상), **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타국의 수입 규제 등에서 적극 대응**할 것을 약속

❹ 산업 현장의 **안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**을 요청

- 국민들이 **철강 산업**에 대해 **지속적인 신뢰**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업들 스스로 **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**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**미세먼지·온실가스 저감 등 적극적인 친환경 투자**를 당부함

□ **한국철강협회 최정우 회장**은 신년사에서 국내 철강 산업이 수요 부진, 보호무역, 환경 쟁점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다고 평가하며,

○ 상시화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**민관이 협력하여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**하고, **산업의 친환경화에 앞장설** 것을 다짐함

○ 특히 저성장을 극복할 돌파구로 산업부와 협력해 **인공지능을 활용한 철강산업 지능화를 선도기업과 중소·중견기업이 함께 추진**하고, **소재·부품·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협력모델**을 구축하여 철강 생태계를 강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김성준 사무관(☎ 044-203-42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